



뮤지컬 선덕여왕은 최첨단 테크놀로지 현대극으로 재미있게 제작했다

숨 가쁘게 호흡을 고르며 인사를 건넨다.

연습 중에 올라왔으며, 실 새 없이 공연준비에 빠져 있는 모습이 강한 자신감을 풍긴다.

몸은 피곤해도 공연에 대한 열정이 눈빛과 말 속에서 녹아난다.

뮤지컬에 대한 열정과 넘치는 에너지로 가득한 그의 역사관을 탐닉하자.

방송 연출에서 뮤지컬 기획자로의 변신, '뮤지컬 선덕여왕'에

담은 다양한 스토리, 기획자의 운영 마인드, 뮤지컬에 대한 철학 등

무궁무진한 열정의 노래를 들어보자.



김승환(뮤지컬 선덕여왕 연출)

뮤지컬 연출자가 되기까지?

음대를 졸업하고 방송사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출하면서도 최종에는 뮤지컬을 해야겠다는 목표가 있었어요. 방송과 뮤지컬은 종합예술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분야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쇼 PD가 뮤지컬 연출을 한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쇼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도 뮤지컬에 대한 생각으로 작품 속에 스토리텔링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어요. TV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도 뮤지컬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었고, 꿈을 향한 지속적인 열정과 노력이 뮤지컬 제작자로 탄생하게 했지요.

뮤지컬 선덕여왕에 담아낸 것은?

드라마를 통해서 알듯이 전체적인 이야기는 한 여인이 주위의 도움을 얻어 자아를 발견하고 과업을 완성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중점을 둔 것은 역사를 보는 관점을 소재로 한 것입니다. 대부분 과거를 정리한 것이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역사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제게 있어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어울리는 것이라는 생각이예요. 예를 들면, '미스 사이공'은 1970년대 미국사회의 월남전을 이야기하고, '아 이다'는 BC 3,000년 경의 이집트시대의 이야기예요. 이것을 BC 3,000년 경의 이야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를 보는 것이거든요. 드라마에서 600년 전의 이야기를 다뤘다면 그것을 똑같이 다룰 것이 아니라, 지역과 시간을 다시 보자는 것이죠. 유라시아 동쪽의 1300년 전 신라의 이야기를 현대적인 시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들의 유전자는 지금 우리의 몸 어디에 담겨있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죠.

성공한 드라마를 뮤지컬로 제작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뮤지컬 '라이온 킹'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을 때, 기대 반, 우려 반이었어요. 그런데, 제작자 입장에서 성공하지 않은 콘텐츠를 갖고 뮤지컬을 연출한다고 하면 하겠어요? 이런 부담감이 아니라 성공한 콘텐츠를 갖고, 원소스 멀티유즈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 부담감은 처음부터 예정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드라마의 인력이 뮤지컬을 도와줄 순 없어요. 드라마와 뮤지컬은 별개의 문제고, 원소스 멀티유즈라는 개념만 함께 가는 거죠. 성공된 콘텐츠를 찾고 있었는데 그것이 '선덕여왕'이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선덕여왕을 선택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예요.

■ 방송사에서 뮤지컬을 제작한다는 것을 의아해하는 시각도있는데 이 점에 대한 생각은?

MBC는 성공한 콘텐츠를 무궁무진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 수많은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팀도 꾸려져 있고요. 소스와 운영팀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우려의 시각도 있지만, 이 과정이 새로운 사업 분야로 진출하는 기초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즈니랜드가 영화만 제작해서 재원을 마련하나요? 애니메이션 제작, 캐릭터 사업, 놀이동산, 완구 사업 등 원소스 멀티유즈를 훌륭하게 이뤄내고 있잖아요. 이전 방송사가 종합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였으면 하는 생각이예요. 방송사의 콘텐츠를 다양한 방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나가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인 거죠.



■ 영화나 공연 등에 방송엔지니어가 참여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닙니다.

이번 뮤지컬에 방송엔지니어를 대거 참여시킨 이유는?

역사적으로 볼 때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나오면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콘텐츠가 세익스피어예요. 공연을 미디어로 끌어 온 거죠. 그것을 방송에서는 카메라에 담아낸 것이지, 조명이나 음향, 무대라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카메라에 맞춰 음향, 조명이 진화한 것이지 기술이 다르지는 않고, 요즘은 오히려 방송이 섬세한 부분이 많아요. 우리나라 여러 장르 중 방송사만큼 대중적이고, 산업화 되어 있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곳이 없어요. 극장의 음향이나 조명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하루에 5~6개의 프로그램을 아무런 문제없이 제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스템은 방송사가 최고죠.

또한, 방송사의 인원들은 무수한 일들을 하다보니까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보편적이고 많은 물량의 작업을 하다 보니 이게 예술이나 기술이나 생각하는데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그 예술적 작업들을 대중화로 변화시킨 거죠.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 조명감독, 음향감독, 무대감독들은 작업을 예술로 생각하며, 시스템이나 체계성, 전문성이 뛰어나죠.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으로 무장된 베테랑 선수들이죠.

뮤지컬 선덕여왕을 준비하며 느낀 뿌듯함은?

12월 11일에 700여명의 관객을 모시고, 갈라쇼를 하면서 정부관계자부터 뮤지컬에 관련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람을 하셨습니다. 관객들이 돌아가면서 너무 좋았다, 다른 유명한 뮤지컬을 보면서 항상 남의 옷을 입은 듯 했는데, 우리의 색깔과 음악을 담아 낸 것 같아 뿌듯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벅찬 감격을 느꼈어요.

이번 뮤지컬의 목표는?

관객들이 공연을 재밌게 즐기고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뮤지컬을 만들 때 재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뮤지컬은 재미있어야 되고, 음악이 좋으나 나쁘냐는 재미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이 나죠. 그 재미라는 것이 그냥 웃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재밌게 노래하고, 대화하고, 전쟁을 하느냐 하는 문제죠.



관객이 보고 나서 참 재밌구나, 열심히 만들었구나, 음악도 정말 좋아요라는 말에 모든 피로가 사라져요. 음식을 먹을 때 아 맛 있구나 정성이 듬뿍 담겼네, 잘 먹고 갑니다의 기분이랄까. 작품에 대한 완성도는 관객이 평가하는 것이기에 관객들의 칭찬이 가장 큰 힘이 되죠.

뮤지컬 제작의 매력은?

깊게 할 수 있어요. 이번 작품도 제작기획을 2년 전부터 진행했고, 연습도 공연 2개월 전부터 집중적으로 할 수 있었죠. 더 섬세하게 할 수 있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뮤지컬 배우들이 5~6개월의 힘든 과정을 함께해 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배우들이 열정적이에요. 가장 큰 매력은 제가 뮤지컬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1000편이 넘는 뮤지컬을 보면서 좋아하는 것을 작업으로 승화시킨다는 것이 행복이죠.

얼마나 재밌게 슬픈가, 슬픈게 재밌게 슬퍼야지 그냥 슬프면 안 돼요. 뜨거운 것을 마시고 아 시원하더라고 말하는 심정이랄까. 뮤지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미예요. 그 재미를 관객들이 만끽하고 즐겨 주는 것이 이번 공연의 목표예요.

뮤지컬 선덕여왕은?

뮤지컬 선덕여왕은 최첨단 테크놀로지 현대 뮤지컬이에요. 최첨단 테크놀로지 현대 뮤지컬이라 함은 최신의 첨단 기술을 도입한다는 거예요. 조명은 최신의 기술이 접목된 최고의 장비를 사용하고, 세계에서 잘 나가는 LED 모니터를 사용하고, 음향도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던 기술로 입체음향을 사용해요. 의상디자인, 무대디자인, 안무 등 모든 분야가 최신의 기술들을 달리고 있어요.

내용 면에서도 제1막 빛의 유전자에서 최신의 조명과 LED로 제작된 탑이 등장하죠. 사극이 아닌 최신의 뮤지컬로 과거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최신의 기술로 가는 거죠. 음악에서도 문노의 노래는 락 버전으로 배우에게 그를 '퀸의 프레디 머큐리' 같은 느낌을 살려 불러 달라는 요구도 했어요. 사극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 현재를 보는 재미있는 현대 뮤지컬이죠.

최첨단 테크놀로지 현대 뮤지컬!!
2010년을 여는 최고의 선물!



MBC 특별기획

뮤지컬 | Queen
SUN DEOK

신덕여왕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

2010.1.5(화) - 2010.1.31(일)
평일 8시 토요일 3시, 7시 일요일 2시, 6시

출연진 설택애방 이소정, 유나영, 미설 차지연
김유신 이상현 비달 강태을 천영공주 김아선
문노 성기운 김춘수 김호영 미생 이기동 옥방 문성혁

티켓가격 평일 VIP석 120,000원 / R석 90,000원 / S석 60,000원 / A석 40,000원
주말 VIP석 130,000원 / R석 100,000원 / S석 70,000원 / A석 50,000원

예매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홈페이지
www.musicalsundeok.com

주최 MBC 제작 MBC mmct 제작투자 RNL BIO (주)올림픽아트홀

협찬 현대자동차그룹 SK Telecom Samsung P11V LG GS칼텍스 poeco (주)농부 TEG BGS 후원 KB 국민은행 동아제약 현대건설 IBK투자증권

기획 윤병언, 민완식 제작 최종미 연출 김승환 예술감독 이창섭

대본 박선자 작곡 김현보, 이시우 의상 이상봉 미술감독 이인규 시각영상감독 정은숙 조광감독 오승만 음악감독 김현수 음악감독 조우현 안무감독 강옥순 제작감독 최상호